

# 땀 뻘뻘 출근길 NO!... 직장인 사로잡은 냉감 아웃도어



아웃도어업계, 기능성+스타일로 '쿨비즈룩' 新 패션트렌드로 안착 땀 흡수 우수한 쿨맥스원단 적용 광택감 줄인 '폴로 티셔츠' 인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패션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직장 제한이 완화되면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업계의 기능성 의류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여름 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원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고, 스타일과 카테고리까지 강화돼 '쿨비즈룩(Cool-biz, 간편하고 시원한 비즈니스 복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웃도어 업체들은 의류 품목과 스타일을 확대하며 직장인 공략에 나섰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폴로 티셔츠'다. 출근복으로도 적합하고,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여름철 대표 패션 아이템으로 꼽힌다.

아웃도어업체가 선보인 폴로 티셔츠는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프레도 폴로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는 네

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폴로 티셔츠 판매는 약 200% 이상 늘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으로 착용감을 강화하고, 광택감을 줄이거나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는 등 소재나 스타일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더의 '아이스 폴로 티셔츠'의 경우, 자사의 후가공 3D 기능성 냉감 소재인 '아이스티(ICE-T)'를 적용해 착용 초기에만 시원한 기준 냉감 의류와 달리 땀이 나는 동안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컬러와 디자인은 한층 깔끔해졌고, 광택감이 적어 일상복으로 연출할 수 있다.

친환경 소재인 천연 한지 소재를 적용한 블랙야크의 폴로 티셔츠 시리즈도 있다. 이 시리즈는 소재 특성상 향균, 흡습속건 등의 기능이 뛰어나고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시리즈제품 가운데 쿨비즈룩으로 적합한 제품은 'M아카이브폴로티셔츠'다. 선염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옷깃 끝이 말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요코에리 타입을 적용해 옷 맵시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웃도어업계는 폴로 티셔츠와 함께 인기 아이템으로 꼽히는 청바지 출시

도 열을 올리고 있다. 통기성, 신축성 등이 핵심이다. 또한, 냉감 시리즈를 통해 상의부터 하의까지 풀 착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눈 여겨 볼만 하다.

마운티아의 '아이스 기어' 시리즈 신제품인 '니즈 팬츠'는 땀 흡수와 건조가 탁월한 쿨맥스원단을 적용해 쾌적함을 유지해주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마운티아는 지난해 아이스 기어 시리즈를 처음 선보이면서 대표 제품으로 콜드 티셔츠를 출시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청바지를 출시하고, 장갑 등 용품군까지 강화하며 냉감 제품군을 확대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아이스 데님 팬츠'를 선보인 아이더도 올해 '제닝스에어'를 새롭게 출시했다. 청바지 워싱 특유의 멋스러움을 부각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아이스 데님 팬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업계 관계자는 "냉감 기술력을 적용한 패션 카테고리가 확장되면서 폴 코디로 착장이 가능한 시리즈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출근 복장도 변화가 시작된 만큼, 여름철 일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능성 제품 출시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아이스 폴로 티셔츠' 아이더



힐라코리아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이스트 센트럴 타워'의 15~18층, 총 4개층을 임대해 신사옥을 이전한다. /힐라코리아

## 힐라코리아, 천호동 랜드마크에 '새 둥지'

서초서 20년 만에 사옥 이전

힐라코리아(주)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1일 밝혔다. 1999년 서초동 사옥을 건립해 입주한 지 20년 만이다.

힐라코리아는 오는 3일까지 이전 작업을 통해 천호동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이스트 센트럴 타워' 내 15층부터 18층까지 총 4개층에 입주한다.

이번 사옥 이전은 ▲사세 확장으로 인해 일부 분산됐던 조직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역세

권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임직원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 편의성을 높이며 ▲신축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임직원의 쾌적하고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또한, 힐라코리아는 이번 신사옥 이전을 기점으로 기존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주5시간 근무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으로, 임직원들이 복잡한 출퇴근시간을 피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김민서 기자

## 삼성물산 패션부문 엠비오, 온라인 시장에 '집중'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남성복 브랜드 엠비오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엠비오는 25~35세 밀레니얼 남성들을 겨냥해 '고품질', '가심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브랜드로 3년만에 재탄생

했다. 기존 소재 및 품질은 유지하되, 가격은 대폭 낮춰 경쟁력을 높였다.

온라인 사업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통합 온라인몰 SSF샵과 온라인 패션 편집숍 무신사를 통해 전개된다. /김민서 기자

## 수심 60m서도 거뜬... '물놀이 인생샷' 딱

(방수케이스 착용시)

### 구기자의 뜬구끄구

#### 12 DJI 액션캠 '오즈모 액션'

방수케이스 없이 수심 11m서 촬영 8배속 슬로모션 등 모드 변경 용이

지난 5월 중국 드론업체 DJI가 처음으로 액션캠(초소형 캠코더) '오즈모 액션'을 출시했다. 액션캠에서는 최초로 전면 컬러 스크린을 탑재해 이목을 끌었다. 오즈모 액션을 일주일 간 사용해봤다.

#### ◆별도 액세서리 없이 수중 촬영 'OK'

IT 기기의 성능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방수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다.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선 방수케이스 같은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했고 케이스를 끼었다 빼는 일은 번거로웠다.

오즈모 액션은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 된다. 오즈모 액션을 쓰면서 이 부분에 제일 감탄했다. 밀폐형 디자인을 구현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갖췄다. 최대 수심 11m까지 촬영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즈모 액션을 물속에 넣는 것이 살짝 조심스러웠지만 그 후로는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물속에서 터치도 문제없이 작동했다. 물속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진정한 '액션'캠이라고 느꼈다.

수중 촬영 후에는 물기를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방수케이스를 착용하면 최대 수심 60m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타사의 액션캠에 방수케이스를 끼워 촬영 중이던 중국인은 오즈모 액션의 성능에 놀라기도 했다.



오즈모 액션으로 수중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구서윤 기자

#### ◆액션캠 최초 전면 스크린 탑재

오즈모 액션 전면에는 렌즈와 함께 컬러 스크린이 존재한다. 타사의 액션캠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셀카를 찍을 때도 작은 화면을 통해 결과물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 브이로그족에게 호평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렌즈 아래로는 'OSMO ACTION' 로고가 있다.

후면에는 2.25인치 후면 터치스크린이 위치한다. 전원을 켜면 SD 카드 용량, 배터리 잔량, 촬영모드, 화질 정보가 나타난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여러 설정값을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영상의 화질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오른쪽으로 넘기면 촬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으로 넘기면 노출값, 밝기 조절 등을 할 수 있다.

오즈모 액션캠은 액션캠인 만큼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다. 65×42×35mm 크기에 134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물리 버튼은 전원, 녹화, 퀵 스위치 등 3개가 존재한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영상 촬영이 시작된다. 퀵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도 동영상, 슬로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사진 모드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

다. 퀵 스위치에 들어가는 기능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 ◆안정적인 영상 촬영 가능

오즈모 액션은 핸드헬드 카메라로는 처음으로 전자식 손 떨림 방지 기술인 '록 스테디'를 적용해 건너나 달리면서 촬영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같은 환경에서 스마트폰과 오즈모 액션으로 찍은 영상을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듀얼 마이크가 탑재돼 있어 음질도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영상 기능으로 손쉽게 멋진 영상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다. 장시간 촬영한 장면을 몇 초 안에 담아내는 '타임랩스'를 이용해 액션캠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만으로 해가 뜨고 지는 영상을 촬영했다. 배터리를 90%가량 충전한 상태에서 2시간 정도 타임랩스 영상 촬영이 가능했다. 일반 영상 촬영 시에는 90분 정도 지속된다.

오즈모 액션은 타임랩스 외에도 8배속과 4배속의 슬로모션 영상과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등 기능을 지원한다.

오즈모 액션은 지난 5월 15일 국내 출시됐으며, 출시가는 45만90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